

2026년 주님의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1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_ 디모데전서 4:5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17-18

오늘의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지니라 사도행전 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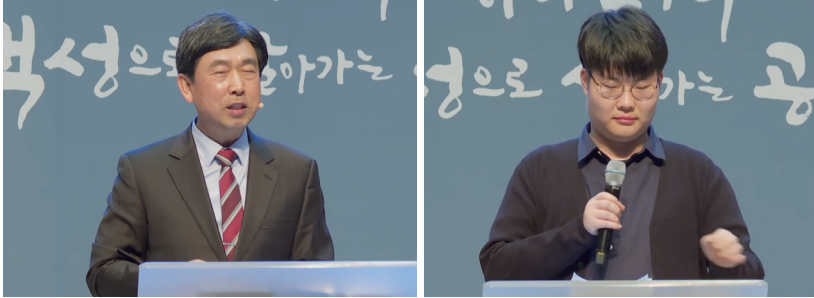


장애인주일

은혜의 3주, 변화된 우리의 시선

4월은 특별히 3주간 장애인사역부 주관 수요일예배와 장애인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4/8(수)에는 안중온누리교회의 양인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보기: 꽤 괜찮은 해피엔딩」(빌1:6-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어 아들 양근학 청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My Ending Story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고, 조금만 더 이해해 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볼 때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같이**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15(수)에는 행복한선교회의 조성철 목사님께서 '약함 속에 담긴 은혜'(고후12:7-10)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간증을 전해 주셨습니다.

4/19(주일)은 '장애인주일'로 교회 내 장애인부서인 '사랑나무, 에바다,

식당나무'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고, 3부 예배에는 에바다부(청각 장애인)의 수어 특송이 있었습니다.



4/22(수)에는 산소망선교회의 진영채 목사님께서 '실로암을 번역하면'(요9: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4월 3주간에 걸쳐 드린 장애인사역부 주관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보람 목사 / 장애인사역부

장애인사역부
수요일예배

고난을 넘어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무겁고 힘이 들고 벅차지만 내가 지고 갈 짐이라면 이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상하시고 인자하시며 웃음이 많으신 조성철 목사님. 개척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더 장애인 선교를 하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철 목사님은 어떠한 목사님보다 위대하시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셔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선교회는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더욱 앞으로 많은 사역으로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이 모여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어느 교회 부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사모님의 지극 어린 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느껴집니다.

설교 중간마다 목사님의 찬양이 마음을 흔들어 주었으며, 찬양하는 모습 내내 힘을 얻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찬양이 이내 십자가를 지고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에 나의 영혼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_ 로마서 10:13**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렵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복음의 사역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가운데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조성철 목사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도구로써 찬양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셔서 사역 현장에 장애를 이겨 나갈 수 있는 섬김과 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약함 속에 담긴 은혜로 널리 이롭게 쓰임을 받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인의 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더 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김성규 안수집사 / 4교구 식당나무

장애인사역부
수요예배

약함 속에 담긴 은혜

장애인사역부 주관 두번째 수요예배는 행복한 선교회 조성철 목사님의 간증과 찬양으로 우리에게 더욱 깊은 감동이 전해진 시간이었다. 지난 4월 8일 수요 예배에 이어, 이번(4월 15일) 예배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조성철 목사님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말씀을 시작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골에서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생후 10개월 무렵 갑작스러운 고열 이후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평생 목발에 의지해 살아가게 되었다. 어린 시절, 병을 고치기 위해 시도했던 수많은 방법들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은 가족에게도 깊은 아픔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다. 여수애양병원에서 선교사인 의사를 통해 수술을 받고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걷게 되면 교회에 나가라”는 선교사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날 예배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첫 곡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을 배경으로 목사님의 사역 활동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 주시며 목회 현장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라는 고백처럼, 고난의 시간조차도 은혜였음을 돌아보게 하는 찬양은 참석한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히 열어 주었다.

이어지는 간증 속에서 그는 삶의 여러 고비를 나누었다.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좌절,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간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하리라”(롬 10:11)는 약속을 붙들었던 순간들이 이어졌다.

특히 그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아픔과 절망을 숨기지 않았으나 그 이야기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으며, 결국 ‘행복한교회’를 세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은 두 번째 찬양 ‘갈보리 십자가에’로 이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라는 고백처럼, 자신의 약함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전해 주었다.

이 찬양을 듣는 순간, 단순한 노래 이상의 고백이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이기에, 우리의 약함 역시 외면하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목사님의 삶 속에서 약함은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이유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과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고백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이제는 나도 지고”라는 가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길에 동참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처럼 들렸다.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졌다.

이어 목사님은 자신의 자작곡인 ‘인내하는 기도’를 소개하며, 신앙의 중요한 태도를 전해 주었다.

“너무 조금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 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낙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적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당장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메시지의 중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졌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
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약함은 제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강조했다. 약함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는 이날 메시지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라는 초대였다.

이번 두 번째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는 약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피해야 할 실패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지난 첫 번째 수요예배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면, 이번 예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약함은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채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망한다.

함줄함울

사랑나무부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

장애인 사역은 교회 자체다

“사랑나무 함께 알아가기”라는 이름으로 4월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산소망선교회의 진영채 목사님께서 “우리는 아직 그 장애 아이를 다 모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강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목사님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였기에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은 말씀은 “가장 약한 지체가 교회의 정체성이다. 즉 장애인 사역은 교회 자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다시 들으니 그 말씀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사역을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로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지체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교회 안에서 장애를 ‘고쳐져야 할 것’으로 바라봤다는 이야기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것과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떤 지체라도 완전한 존재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귀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학창시절 요추 수술로 인해 오랜 시간 걷는 것과 앉는 것이 어려운 상태로 지내셨다는 간증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

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은 ‘약함’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정명원 강사님께서 “장애인의 식이와 노화”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강의는 신앙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실제 사역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강의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설탕이 많은 단 음식이나 밀가루, 과자, 튀김 음식 등이 장애인에게 더욱 좋지 않으며, 이러한 식습관이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사역자로서 식단과 생활 전반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부분까지도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올해부터 사랑나무 부장으로,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제가 돕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러한 생각이 점차 내려놓아져야 함을 느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사랑나무 사역 가운데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에 고생하신 배운환 목사님, 이왕헌 목사님과 김용규 장로님 그리고 ‘사랑나무’ 이름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사랑나무 모든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홍 안수집사 / 사랑나무부



에바다부
수어특송

소리 없는 울림, 함께 부르는 하늘의 노래

우리는 흔히 ‘음악’을 귀로 듣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경험한 것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놓았습니다.

4월 19일 장애인 주일, 3부 예배에서 에바다(청각장애인) 특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라는 곡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농인(청각장애인)들과 청인(비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가를 연습하고, 하나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합창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의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흐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끝의 움직임과 간절한 눈빛을 통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달된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연습할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소리를 내어 노래하는 이들과 손과 표정으로 노래를 그리며 이들이 어떻게 박자를 맞추고 화음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동안 연습이 거듭될수록 ‘소리’라는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찬송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입술과 손끝으로 동시에 피어날 때, 그것을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실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속도를 맞추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번 찬양 연습이 가장 깊게 다가온 생각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통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름을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일입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제는 시혜적인 동정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여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의 곡을 완성했듯, 우리 사회 역시 각자의 장애나 한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치고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는 그 가르침의 실천이었습니다. 농인들의 고요한 찬양 속에 담긴 울림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의 간절함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편견의 눈을 거두고 연대의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농인 동료에게는 세상의 어떤 장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평안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도 제 귓가에는 ‘소리 없는 찬양’이 맴돕니다. 이 찬양이 단순히 하루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차별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찬 거대한 합창 교향곡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바다 특송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매 주 일요일 10시 제1집회실(5층)에서 있는 ‘에바다 예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박찬호 집사 / 2교구

에바다부, 사랑나무부
부서초청예배

발걸음 위에 더해진 은혜의 예배

지난 4월 26일, 에바다부서와 사랑나무부서가 각 부서실에서 초청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참여해주신 덕분에 이번 초청 예배에서 장애인 성도와 비장애인 성도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두 부서를 향한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왕현 목사



2026 무지개잔치

미션 빌더스, 함께 하는 무지개잔치

2026년 주님의교회 전교인 무지개잔치가 "미션 빌더스(Mission Builders)"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화, 어린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의교회 운동장(정신여중고 외)에서 열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웃음과 감동을 나누며, 서로를 기뻐하고 격려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가정과 다음 세대, 이웃이 모두 함께 모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축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상훈 목사



2026년
전교인 무지개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미션 빌더스(Mission Builders)"라는 주제로 2026년 전교인 무지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향해 힘차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또한 그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꿈과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삶으로 선교를 이루며 세우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과 교사 한 분 한 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2026년 전교인 무지개잔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김하수 드림

전교인 무지개잔치 일정

시간	내용	장소
10:00 ~ 15:00	무지개잔치	등록부스
12:00 ~ 12:30	해피존 추첨	해피존(본부석)
13:00 ~ 13:50	가스펠 버블쇼	운동장 농구대측

꼭 지켜요!

- 개인차량은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주세요.
-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회용품 등을 자제해 주세요.
(* 텀블러, 개인용기 사용 권장)
- 응급환자 및 미아 발생시 본부석으로 오세요.

무지개 의미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비가 온 후에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생명을 살리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무지개잔치는 서로 기뻐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영광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전교인 무지개잔치 입장 팔찌로 **해피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후 12:00, 해피존)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잠실동) 주님의교회
교회사무실 02)416-5181
www.pcltv.org



2026. 5.5 (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님의교회 운동장
(정신여중고 외)

미션 빌더스

패밀리존	플레이존	푸드존	교육부스존	해피존
종이피리 / 키링 만들기 요술팔찌 만들기 비치백 꾸미기 색칠풍선/부채 만들기 선크림 만들기 Make It (디폴블럭) Play It (게임) Grip It (그립톡) Save It (달고나) Take It (풍선)	유로번지 바이킹 에어바운스 소떡소떡 떡볶이 농구 해머 게임 회전라이다 전동기차 포토존 레트로존	푸드트럭 다코아키 소떡소떡 떡볶이 참스테이크 아이스크림 꼬마김밥 과배기 팜콘 커피 국밥	주님의교회 다음세대와 가정사역을 소개합니다	해피존 추첨 이벤트 (오후 12시) 공연존 가스펠 버블쇼 (오후 1시)

전교인 무지개잔치

정신여중·고등학교

의무실

체육관

입구

출구

주차장

교문

1. 입장부스 (무로쿠폰 배부) / 해피존 / 자전거차

2. 해피존 본부석

3. 플레이존

4. 교육부스존

5. 푸드트럭존

6. 푸드존

7. 영유아존

8. 지하식당

9. 카페 테리아

10. 카페 테리아

11. 카페 테리아

12. 카페 테리아

13. 카페 테리아

14. 카페 테리아

15. 카페 테리아

16. 카페 테리아

17. 카페 테리아

패밀리존

유아존 1 ~ 5

유소년존 6 ~ 10

공연존

가스펠 버블쇼 (오후 1:00)

키즈윌터

플레이존

1. 종이피리 만들기

2. 키링 만들기

3. 요술팔찌 만들기

4. 비치백 꾸미기

5. 색칠풍선, 부채 만들기

6. Make It (디폴블럭)

7. Play It (게임)

8. Grip It (그립톡)

9. Save It (달고나)

10. Take It (풍선)

영유아존

16. 영아용 에어바운스 (실내)

17. 영아용 두더지잡기 (실내)

푸드존

1. 종이피리 만들기

2. 키링 만들기

3. 요술팔찌 만들기

4. 비치백 꾸미기

5. 색칠풍선, 부채 만들기

6. Make It (디폴블럭)

7. Play It (게임)

8. Grip It (그립톡)

9. Save It (달고나)

10. Take It (풍선)

가스펠 버블쇼

오후 1:00

가족과 이웃 모두가 즐겁게 복음으로 하나되는 은혜로운 시간에 초대합니다 ~!

해피존 추첨 이벤트

오후 12:00

해피존(본부석)

먹을거리

오전 10:00 ~ 오후 2:00

무료 및 유료쿠폰으로 이용 (유료쿠폰은 쿠폰판매소에서 구매)

- 푸드트럭
 - 다코아키, 오키노미야키 5,000원
 - 소떡소떡 3,000원
- 참스테이크 5,000원
- 꼬마김밥 4,000원
- 국밥 3,000원
- 떡볶이 3,000원
- 과배기 3,000원
- 컵라면 1,000원
- 아이스커피 및 음료 1,000원
- 아이스크림 1,000원
- 팜콘, 소프트아이스크림 무료

실터

1. 실만한 물가(1층) 2. 소예배실(1층)

교육부스존

1. 다음세대(유유청정) 및 가정사역원 사역안내

- 플레이존**

1. 전동기차

2. 영아용키즈라이다

3. 추억의 두더지(게임기)

4. 해머 게임

5. 농구 게임

6. 에어바운스

7. 회전라이다

8. 유로번지(2대)

9. 바이킹(2대)

10. 레트로존 (인형뽑기,판돌리기)

11. 포토존

영유아존

16. 영아용 에어바운스 (실내)

17. 영아용 두더지잡기 (실내)

- 패밀리존**

1. 종이피리 만들기

2. 키링 만들기

3. 요술팔찌 만들기

4. 비치백 꾸미기

5. 색칠풍선, 부채 만들기

6. Make It (디폴블럭)

7. Play It (게임)

8. Grip It (그립톡)

9. Save It (달고나)

10. Take It (풍선)

실터

1. 실만한 물가(1층) 2. 소예배실(1층)

교육부스존

1. 다음세대(유유청정) 및 가정사역원 사역안내

- 패밀리존**

1. 종이피리 만들기

2. 키링 만들기

3. 요술팔찌 만들기

4. 비치백 꾸미기

5. 색칠풍선, 부채 만들기

6. Make It (디폴블럭)

7. Play It (게임)

8. Grip It (그립톡)

9. Save It (달고나)

10. Take It (풍선)

실터

1. 실만한 물가(1층) 2. 소예배실(1층)

교육부스존

1. 다음세대(유유청정) 및 가정사역원 사역안내

성지순례
광주 양림동

열방을 향한 주님의 발자취

고교 신우회모임에서 전남 광주 양림동에 있는 외국인선교사묘역 및 선교기념관, 호남신학대학 등을 둘러보았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늘 감동이고, 그분들이 잠든 묘역을 둘러보다 보면 빛진 자로서의 마음이 절로 든다.

광주/호남지방 선교는, 평양 등 이북지역을 담당한 미국 북장로교보다 더 보수적인 미국 남장로교가 맡아 놓여온 선교, 의료, 교육, 빈민구제 등에 큰 업적을 남겼다.



외국인선교사묘역(위) 유진벨선교기념관(아래)



가장 대표적 선교사는 유진 벨(배유지)이며, 외증손자가 저명한 의사이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요한 박사이다. 유진 벨 집안은 4대째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진 벨 선교100주년을 기념하여 1995년 북한 결핵퇴치사업을 벌이는 유진벨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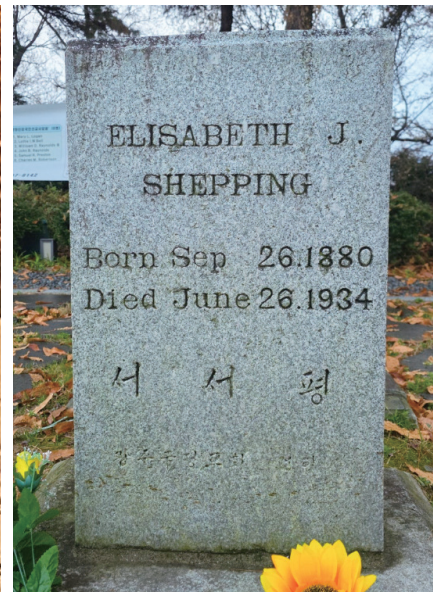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 순례에서 가장 마음을 파고 든 분은 포사이드(보위럼) 선교사이다. 목포지역 의료선교사인데, 광주에서 활동하던 젊은 의사 오웬선교사가 급성폐렴으로 사경을 헤매자, 급히 말을 타고 광주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 포사이드는 길에 쓰러져 있는 어느 한센병 여인을 발견한다. 동료 선교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었으나, 추호의 망설임 없이 그 여인을 안아 말에 태우고, 자신은 말고삐를 잡고 걸어갔다. 수행하던 조선인에게 한센인 지팡이를 주어 오라고 지시했고, 그가 머뭇거리자 호통을 쳤다. 이런 선교사의 행동에 그 조선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안타깝게 포사이드가 살리려던 오웬선교사는 도착전 사망했으나, 대신 한센인은 포사이드가 입원시켜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다. 나중 그 여인이 입원했던 병원에 포사이드의 주도로 국내 최초 나환자 전문치료시설(광주나병원)이 세워진다. 그리고 포사이드에 감동한 그 조선인은 자기 재산을 털어 국내 최초 민간 나환자정착촌을 건립했고, 후에 목사가 되어 선교, 구제는 물론 독립운동 전면에도 나서 “광주의 아버지”, “무등산의 성자”로 추앙받게 된다(최흥종 목사). 후일 이 두 시설은

여수 애양원으로 발전하고, 손양원목사가 그 곳에서 시무하였다. 그러나 포사이드 선교사는 과로와 풍토병으로 귀국한 후 4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다. 포사이드나 오웬 모두 젊고 유능한 의사였음에도 일찍 사망한 것은, 먼 이국땅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활동에 헌신했기 때문이라.

포사이드 선교사 일화를 들으며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났다. 바쁜 길을 가는 중이었지만 곤경에 처한 자를 지나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이웃이라 하셨다. 포사이드의 행동을 지켜보던 최흥종목사가 후일 큰 인물로 성장하여 더 큰 사역을 이어간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성경에서도 스테반의 순교현장을 지켜보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 장면을 잘 아는 디모데가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포사이드선교사(위) 최흥종 목사(왼쪽 아래) 서서평(오른쪽 아래)



이밖에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는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서서평)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 평생 독신으로 조선에 살며 여성운동 선구자였으며, 모든 것을 가난한 이에게 바치고 본인은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유품이 거적매기 하나와 낡은 담요, 그리고 7전이 전부였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침 그녀의 묘비앞에 누군가 갖다놓은 노란 수선화가 따스한 봄날에 아름답게 빛났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역은 방문한 적이 있으나, 먼 남쪽 광주 양림동에 이런 묘역, 기념관 등 기독교성지가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귀한 선교역사가 더욱 뜻깊게 머리에 남았다. 노자의 도덕경에 “죽었으나 잊혀지지 않는 자는 오래 사는 것이다”(死而不亡者壽)라는 구절이 있다. 아무쪼록 이들도 오래전에 떠났지만 그들의 사역과 정신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정희전 집사

유아세례

교회가 함께 키우는 믿음의 씨앗

5월 3일 3부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12명의 아기들이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유아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언약 가운데 두시고, 교회와 부모가 함께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날 세례를 받는 아기들은 아직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는 믿음의 서약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이 가정과 아이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각자의 마음을 담아 자녀를 위한 기도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줄함울

강진원 (부: 강명진, 모: 현효원)

무엇보다 늘 건강하게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도현 (부: 박종우, 모: 이지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권이서 (부: 권우람, 모: 선민영)

이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이로 크도록 하옵소서. 또, 부모인 저희에게도 주님의 뜻에 맞게 이서를 양육할 수 있는 인내와 능력 그리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김도진 (부: 김창우, 모: 황예나)

하나님, 도진이가 아픈 곳 없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사랑받고 사랑 주는 아이로 자라길, 주님 안에서 신앙의 가치관이 올바른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김리나 (부: 김병곤, 모: 림조안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세상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랍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유준 (부: 김동현, 모: 유가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유준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부모 욕심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하옵소서.

박해성 (부: 박병준, 모: 장혜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넷째 아들, 해성이가 건강하고 맑은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밝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해성이에 게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뉘주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채이 (부: 성기대, 모: 김소희)

채이가 지식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세요. 채이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주세요.

신아영 (부: 신창진, 모: 이정현)

아영이가 신앙 안에서 항상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주세요. 저희 또한 믿음의 본이 되며 아영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수아 (부: 양익순, 모: 서혜진)

이 아이가 많은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주세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주세요. 주어진 삶 속에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주세요.

이나예 (부: 이은상, 모: 고제영)

주님의 은혜 아래 올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시윤 (부: 이승협, 모: 최혜진)

주님, 시윤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녀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길을 주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인도해주세요.

유아세례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귀한 12명의 아기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때가 이르면 스스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돌보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작은 생명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안수소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의 삶이란 꽃이 가는 곳을 따라 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졸업과 결혼, 장례와 출산, 병상의 자리를 찾아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길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얼마 전, 사십년지기 친구가 안수식을 앞두고 축하의 떡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떡을 나누는 순간이 곧 잔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다. 꽃과 떡이 있는 자리마다 함께하며, 생명을 나누는 목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떼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조준모, ‘예수 생명의 양식’ 중에서)

안수를 허락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축하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원 목사 / 큐티사역부, 가정사역원



목사안수소감

처음 그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교회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는 강요한 목사입니다. 2018년 겨울, 무사히 군대를 전역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해주셨고,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사랑과 기도를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다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며 겸손한 자세로 남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다짐했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강요한 목사 / 유년부, 어와나 스팅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교회 속 다양한 목사의 모습

교회 안에서 ‘목사’는 하나의 직분이지만, 사역의 형태와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27조는 이러한 목사의 칭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질서와 사역의 전문성을 세우기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목회가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건강하게 세워진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교회를 이끄는 중심 사역자

가장 중심이 되는 목회자는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의 안정적인 목회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목회자다.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일정 기간 교회를 맡아 시무하는 목사로, 임기는 3년이다. 위임 이전 단계에서 교회를 맡아 목회를 담당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함께 사역하는 협력 목회자

교회의 다양한 사역은 여러 목회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교육·교구·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한다.

교육목사는 교육 분야에서 위임(담임)목사를 돕는 목사로, 다음세대 양육과 신앙교육을 담당한다.

교회 밖으로 확장되는 사역

교회의 사역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 군대, 병원, 학교, 교정시설, 사회복지기관, 산업현장 등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또는 관련 기관에서 교육·출판·행정 등의 사역을 맡는다.

선교목사는 해외로 파송되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총회의 파송을 받아 사역한다.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다. 군 선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절차와 규정을 통해 세워지며,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 목회 직무와 구분된다.

명예와 공로를 기리는 목사

오랜 헌신을 기리는 칭호도 있다.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오랜 기간(20년 이상) 시무한 후, 교회의 결의와 노회의 승인으로 추대된 목사다. 교회의 신앙적 유산을 상징하는 존재로 존중받는다.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오랜 기간 봉사하며 공로가 인정된 목사에게 노회가 부여하는 칭호다.

현재 상태에 따른 구분

목사의 현재 사역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도 한다.

무임목사는 노회로부터 맡은 시무처가 없는 상태의 목사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직분이 제한될 수 있다.

은퇴목사는 정년 또는 조기 은퇴로 사역을 마친 목사를 의미한다.

유학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학업을 위해 유학 중인 목사로, 허락된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줄함줄

사역자 모집

초록빛 5월, 당신의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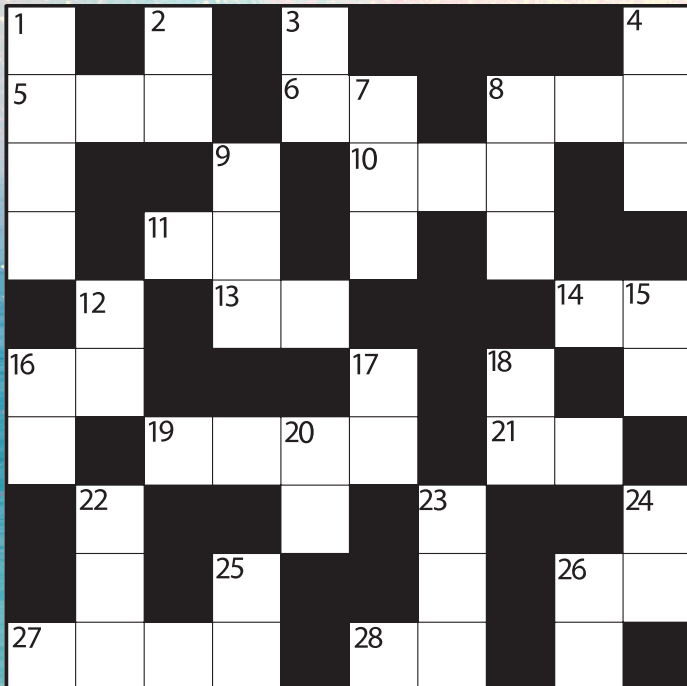
생명력 넘치는 5월, 주님의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함즐함울’ 사역자 모집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중반을 향하는 지금, 여전히 우리 곁에는 정성 어린 손길을 기다리는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나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함께 울고 웃어줄 ‘한 사람’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님의 작은 결단이 누군가에게는 5월의 큰 위로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즐함울

부서	사역 분야	인원	세부 사항	사전교육 및 연락처
상례부	운전 봉사자	3명 이상	- 장례 예배(위로/입관/천국환송) 운전 봉사 1종보통면허 소지 및 승합차 운행 가능자	- 조용히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따뜻한 마음 - 매번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 봉사자는 많을수록 서로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부장 김성배 안수집사 (010-3656-7559)
	위로 동행자	〇〇명	장례의 전 과정 속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예배를 섬기며, 슬픔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입니다.	
호스피스부	손뜨개질 봉사자	3명	호스피스 암 환우들을 위한 보온용 털모자 제작	- 손뜨개질 교육 및 재료 지급 - 부장 최영미 집사 (010-4361-0527)
	운전 봉사자	1명	- 샘물호스피스 병원 이동 차량 운행 봉사 (격월 1회) 1종보통면허 소지 및 승합차 운행 경험자	
주방부	새벽 준비팀	1명	오전 6시~8시 재료 준비, 홀 세팅	- 주방 담당 장로, 부장 및 숙련된 사역자가 상세한 설명과 안내와 안전 수칙 교육 - 학생 시절 식당 알바 경험자 대환영 - 부장 유정아 권사 (010-7455-2019)
	마무리 팀	8명	- 대식당, 소식당 의자 정리, 물걸레 청소 - 중정 의자, 파라솔 정리	
주차안내부	2부 08:30 ~ 10:30	2명	교회 안팎의 각 위치에서 주차 안내 및 보행자 안전 유지	- 매뉴얼 및 필요 의류와 장비 지급 - 안전과 위치별 안내 수칙 교육 - 부장 오상훈 안수집사 (010-9075-4305)
	3부 10:30 ~ 12:30	2명		
어와나 트랙 (중등부) 어와나 저니 (고등부)	교사 또는 보조교사	3명	- 중고등학생 부모역할을 선행학습하고픈 초등학생 자녀 부모님 - 이제는 철들어서 중고등학교 동생들을 잘 가이드할 맘이 든 청년 선생님 환영합니다. - 담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조교사도 가능합니다.	- 어와나 본부 BT 및 학기 전 트랙 / 저니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신앙교육 역량향상 - 부장 임성훈 안수집사 (010-8885-8257)
유년부 ~ 소년부	어린이 예배 반주자	1명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돕고, 기쁨으로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통선대외협력부	우리들학교 운전 봉사자	1명	- 탈북청소년대안학교 우리들학교 봉사자 이동을 위한 차량 운전 -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10시 출발	부장 윤경자 집사 (010-3050-0155)
사랑나무부	교사	3명	자폐·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교우들의 예배 및 특별활동을 도와주실 분	- 교사들이 사랑나무 예배 및 특별활동에 대하여 사전 교육 - 부장 김기홍 안수집사(010-2779-2466)
다문화선교부	총무, 회계, 서기, 교회학교 교사	〇〇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과 사랑을 국내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섬기실 분	- 곤지암 비전교회와 협력하여 사역과 지원 - 부장 장동현 안수집사 (010-9046-8752)
도서부	4층 도서실 봉사자	1명	매월 2,4주 12:00~16:00	이은희 집사 (010-9197-5696)
		1명	매월 1,3,5주 토요일 10:00~13:00	
의료선교부	의료 선교 봉사자	〇〇명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 해외 의료 봉사 참여 (예, 필리핀)	홍승호 안수집사 (010-5411-1048)
무용부	비전선교 무용부원	0명	몸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역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박설리 권사 (010-7670-6621)
호산나 찬양대	주일 1부예배 찬양 모든 파트	〇명	가장 고요한 시간에 깨어 주님께 첫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 그 복된 자리에 함께할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대장 김성배 집사 (010-3656-7559)
시온찬양대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〇〇명	모든 파트,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실 분	- 지휘자의 상세한 가이드와 예배 전후 연습 - 문의 : 심원일 집사 (010-9005-0112)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디도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일곱 번째 권인 <디도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 생활에서 풀려난 후 헬라인 출신 개종자이자 신실한 조력자였던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과 성도들의 바른 행실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서기 63~66년경 마게도냐에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515호 디모데후서 편 정답



가로 힌트

5. 믿음직하고 거짓 없이 성실한 성품. 어떤 상황에서도 의리나 약속을 지키는 굳건한 태도나 성품을 말한다. (딤후 2:10)
6. 로마법에 정통한 법률가. 바울이 디도에게 소개했다. (딤후 3:13)
8. 알렉산드리아 출신 기독교 지도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딤후 3:13)
10. 지중해 남쪽에 있는 크레타섬의 옛 이름.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바울이 디도를 이곳에 두어 전도활동을 하게 했다. (딤후 1:5)
11.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것을 지키기로 한 것. 1970년대 활동했던 투아에무아의 곡 이름이기도 하다. (딤후 1:2)
13. 부모가 둔 자식을 달리 부르는 말. 아들과 딸을 두루 부르는 말이다. (딤후 2:4)
14. 어떤 일을 위해 미리 필요한 것들을 마련함. (딤후 3:1)
16. 다른 사람을 이끌수 있도록 하는 힘이나 위엄. (딤후 2:15)
19.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유대교에서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흔히 '랍비'라고 불렸다. (딤후 3:13)
21.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발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또는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말한다. (딤후 1:13)
26.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딤후 1:16)
27. 그리스 서북부 연안에 있던 고대 도시. 바울이 겨울을 지내기로 했던 지역이며, 4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 (딤후 3:12)
28.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함. (딤후 3:3)

세로 힌트

1.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김. (딤후 2:15)
2. 어떤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을 두루 부르는 말. '백 가지 성'에서 유래했다. (딤후 2:14)
3. 권력과 세력을 두루 부르는 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그 힘을 행사하는 집단의 형세를 말한다. (딤후 3:1)
4. 의에 합당함.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딤후 2:12)
7.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 (딤후 1:8)
8. 바울의 동역자. 디도를 부르기 위해 두기고와 함께 니고볼리로 갔다. (딤후 3:12)
9. 유산을 받는 사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이루는 일을 이어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딤후 3:7)
12.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는 일. (딤후 1:16)
15.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 (딤후 1:6)
16.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어떤 것을 하도록 함. (딤후 2:6)
17. 일상의 모든 일. (딤후 3:2)
18. 과썸하고 알미워 증오할만 함. (딤후 1:16)
20. 삶에 도움이 되는 말. 삶을 바람직하게 이끌도록 도와주는 지침이 되는 말. (딤후 2:4)
22. 바울의 동역자.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다. (딤후 3:12)
23. 주인의 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명을 받아 집안 일과 함께 종들을 관리했다. (딤후 1:7)
24. 어떤 사실을 인정함. 존재를 인정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딤후 1:16)
25. 참된 이치. 예부터 '존재'와 함께 철학의 주된 주제였다. (딤후 1:14)
26. 유기물이 썩음.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자가 타락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딤후 1:14)

남선교회연합회
헌혈캠페인

피로 맺은 사랑, 기도로 이어진 생명

터키어 ‘칸카르데쉬(Kankardeş)’는 ‘피를 나눈 형제’를 뜻하는 말로, 생명을 함께 나눈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어제 주님의교회 마당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 형제애가 기도와 교제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4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대한적십자와 남녀선교회가 함께한 헌혈 행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최대 헌혈 가능 인원 30명을 넘어 총 39명이 동참하였고, 시간의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또한 가을 헌혈을 약속하며 마음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은 주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번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든 것은 ‘환우들을 위한 1분 기도’였습니다. 기도와 나눔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준비해 주신 4남선교회 이승균 회장님과 회원들, 그리고 직접 헌혈에 참여하시며 사랑과 기도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또한 따가운 봄 햇살 아래에서 접수와 다과를 섬기며 헌신하신 여전도회 김선미 회장님과 회원들의 손길은, 섬김의 본을 보여준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사랑과 수고는 오랫동안 우리 공동체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_요한일서 4:7 말씀처럼, 이번 헌혈과 기도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도 이 거룩한 ‘피와 기도의 축제’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임정식 안수집사 / 남선교회연합회장



교회일정

5/3(주일)	어린이주일, 성찬주일, 유아세례식
5/5(화)	전교인 무지개잔치
5/6(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8교구)
5/9(토)	온세대 새벽기도회
5/10(주일)	어버이주일, 정기당회
5/12(화)	5여전도회 협력교회 방문
5/16(토)	군선교 진중세례식
5/17(주일)	청년주일, 교사주일, 유아숲, 청소년숲 교사힐링데이
5/19(화)	마더와이즈 11기 수료식
5/20(수)	1여전도회 협력교회 방문
5/21-23(목-토)	에바다 국내 성지순례
5/23(토)	어와나 올림픽, 아름다운부모학교 8기 수료식
5/24(주일)	성령강림주일

알립니다

1. 2026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1차)

일시 5/10(주일) 오전 8:00 ~ 오후 4:00

방법 문자로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전자투표 또는
지하(다목적홀)에서 전자투표

선출인원 장로(10명), 안수집사(20명), 권사(20명)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화~금)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2026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2026. 3.8 (주일) 예정
- 당회의 공천 투표 : 2026. 4.12 (주일) 예정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2026. 5.10(주일), 2차선거 2026. 5.17(주일) 예정

● 항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 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 기준)	자격 및 성품	세례학당 이수여부 (선거년도말 기준)
장로	7년	10년	만40세~65세 미만 1962.1.1~1996.12.31 출생자	성당함식권과 동순례력이 있는 자	○
안수집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1957.1.1~1996.12.31 출생자	행위개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
권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1957.1.1~1996.12.31 출생자	교우들의 신앙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 항존직(은회장로, 사임장로, 시무, 은회 안수집사, 시무, 은회권사, 합동장로)
- 거주비 인도자
- 계직부서 부서장
- ② 공천투표 : 당회원

2026년 1월 11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

성경필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묵상보다 깊이, 통독보다 강하게, 성경필사를 통해
‘주님사랑’ 하십시오.

2026년 성경필사 진행일정

- 1-3월 출애굽기
- 5-6월 레위기
- 9-10월 신명기

문의 박준범 목사 010.7164.5324

십자말씀이 515호 정답자: 설은우 청년(5교구)

십자말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